

편리를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쿠팡의 친환경 혁신

2026. 3. 27.

쿠팡은 '제로 웨이스트'를 목표로 자원 순환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전용 포장재 '프레시백' 재 활용부터 친환경 소재 개발, 일반 상품용 다회용 에코백 출시까지. 쿠팡의 친환경 여정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AI가 고객 수요를 예측하고 로봇은 최적 동선으로 움직이는 쿠팡의 혁신. 편리함을 넘어 지구를 지키는 커머스를 위해 쿠팡은 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쿠팡의 친환경 여정은 제로 웨이스트라는 목표에서 시작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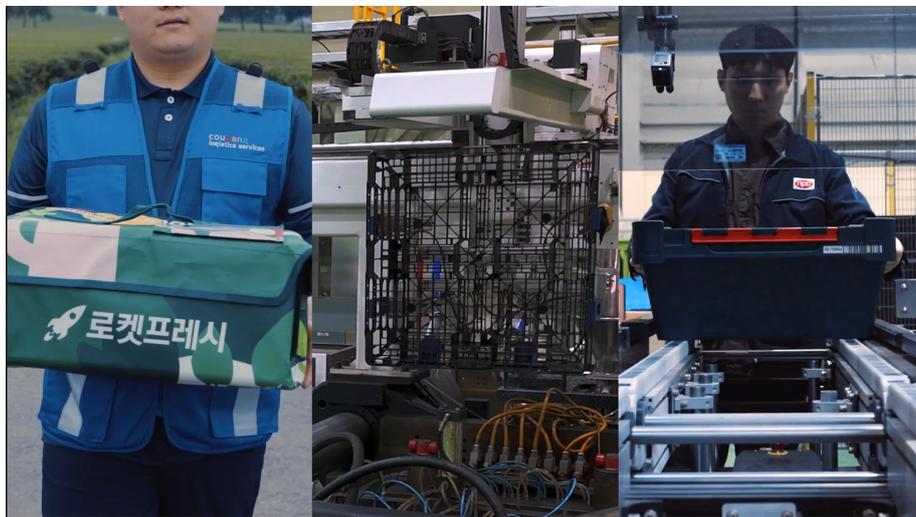


쿠팡 패키징 팀 최민석 팀장

“2020년, 쿠팡은 첫 패키징 혁신으로 신선식품 전용 재사용 포장재인 ‘프레시백’을 선보였습니다. 프레시백 도입으로 한 해 2억 개의 스티로폼 박스를 대체하는 엄청난 효과를 냈죠.”



“수명을 다한 프레시백을 화물 운송용 팔레트로 재활용해서 연간 2,300톤의 플라스틱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폐기 시에도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의 프레시백을 개발했고 특허 또한 출원했습니다.” - 쿠팡 패키징 팀 최민석 팀장



재사용에 이은 재활용, 그리고 친환경 폐기까지. 쿠팡의 자원 순환 프로젝트는 이렇게 매년 진화합니다. 이런 혁신은 중소기업과 함께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엔피씨주식회사 송인환 신사업개발부장

“쿠팡과 함께 새로 개발한 신형 프레시백은 업계 최고 수준의 초경량, 보냉, 보온 성능을 자랑하고 스티로폼과 달리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EPP(Expanded Polypropylene)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 엔피씨주식회사 송인환 신사업개발부장



신선 식품용 프레시백에 이어 일반 상품 배송을 위한 *다회용 에코백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백을 한 단계 진화한 버전으로, 업계 최초 초경량 소재를 사용해 친환경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높였습니다.

*다회용 에코백: 일부 지역에 한해 테스트 도입 중



광운대학교 홍대순 경영대학원장

“쿠팡이 프레시백, 에코백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특히 커머스가 하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편견이 있는데 (쿠팡이) 이런 편견을 깨고 새로운 산업의 표준과 지속가능한 물류 생태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광운대학교 홍대순 경영대학원장



쿠팡은 이렇게 끊임없는 물류 기술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커머스를 만들어갑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